



[ESG] 세법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 종목 20개

Analyst 엄수진 sujineom@hanwha.com 3772 7407 / RA 김예인 yein.kim@hanwha.com

배경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양측 모두 한국 증시 부양을 목표로 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 중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 후보는 최근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는 배당소득세를 낮추고 낮은 곳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발언하였으며, 김 후보는 “5,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 20% 분리과세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에 더해 김문수 후보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년 이상 장기주식 보유자를 대상으로 투자기간에 비례해 배당 원천 징수세율 차등 부과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당소득 관련 세금 부담이 줄면 대주주가 배당을 할 인센티브가 높아져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상승할 것이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으로 흘러 들어가던 자금 중 상당량이 주식으로 유입되면서 증시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지난 4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아직 개정 절차의 초입 단계이기는 하나, 주요 대선 후보들이 배당소득에 대한 세(稅) 부담 완화를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시 수혜를 볼 종목을 발췌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표1]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24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개정 전 (현행)	개정 후
- 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 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과세(최고 49.5%) 적용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지방세 포함 시 15.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지방세 포함 시 22%) 3억원 초과인 경우 25% (지방세 포함 시 27.5%)

자료: 국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선정 기준

이소영 의원 등 10인이 2025년 4월 24일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고 가정 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다음 [표2]의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다. 1단계는 개정안에 담긴 배당성향 기준을 차용한 것이고 2단계는 지속적으로 배당 재원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당기순손익 장기간 흑자 여부로 판단하였다.

3단계의 경우, 과거에 높은 배당성향을 유지한 것과 별개로, ‘향후에’ 지급할 배당에 관하여 최소 배당성향 또는 주당배당금의 하한을 대외적으로 선언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한 척도로 삼았다. 이는 배당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공시한 약속에 (긍정적인 의미로) 구속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설사 일시적으로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미래에’ ‘꾸준히’ 높은 배당성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 볼 수 있다.

[표2]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 종목 선정 절차

1단계	최근 5년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회사 선정
2단계	1단계에서 선정된 기업 중 최근 10년 당기순손익 흑자인 기업 선정
3단계	미래의 최소 배당성향 또는 주당배당금 하한을 선언·공시하였는지 여부 조사
4단계	4년 이상 배당성향이 25~35% 구간에 있거나 10년 중 1개 연도만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포함하여 3단계 실시 → 배당정책 등의 내용이 건실한 경우 포함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 종목 20개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 종목 20개와 각 기업별 (배당성향, 배당금총액 등과 관련된) 배당정책은 다음과 같다. [표2]의 선정기준에 한 곳 차이로 미치지 못하여 동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이라면 수혜 종목이 될 수 있다.

[표3]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 종목 20개

종목코드	기업명	종목코드	기업명
005940	NH투자증권	058470	리노공업
024110	기업은행	079900	전진건설로봇
086790	하나금융지주	000270	기아
000810	삼성화재	010130	고려아연
051600	한전 KPS	036570	엔씨소프트
052690	한전기술	307950	현대오토에버
000080	하이트진로	078000	텔코웨어
033780	KT&G	039570	HDC 랩스
237880	클리오	443060	HD 현대마린솔루션
214370	케어젠	030000	제일기획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4]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 종목 20 개

종목코드	기업명	상장시장	업종 ^{주1}	배당정책 등 ^{주2}
005940	NH투자증권	유가증권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상시 기본배당 500 원 지급하여 실적 하락 시에도 최소 배당수익 보장 · 기본배당 외 사업성과를 고려한 추가배당 통해 업계 최고의 주주환원 추진
024110	기업은행	유가증권	은행 및 저축기관	· CET1 ^{주3} 구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점진적인 배당성향(별도 기준) 상향 추진
086790	하나금융지주	유가증권	기타 금융업	· 2027년까지 주주환원을 50% 달성
000810	삼성화재	유가증권	보험업	· 2028년 주주환원을 50% 목표
051600	한전 KPS	유가증권	전기 및 통신 공사업	· 최소 배당성향 50% 명시
052690	한전기술	유가증권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 2027년까지 최소 주주환원을 40% 목표
000080	하이트진로	유가증권	알코올음료 제조업	· 배당 기준: 배당성향 20% 이상 유지 (비경상적 손익 제외, 별도재무제표 기준) · 정책 적용기간: 3년 (2024~2026년 사업연도) · 주당 최저배당액: 주당 700 원 액면 배당 (액면배당률 14%, 환원재원이 주당 700 원 미달 시)
033780	KT&G	유가증권	담배 제조업	· 2024~2027년 현금배당 2.4조원 목표 · 비핵심자산 효율화를 통한 자원 유입 시 추가 주주환원 명시
237880	클리오	코스닥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환원재원: 각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20% 내외 · 환원방법: 현금배당, 주식배당 등 추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에 따름 · 주주친화정책 적용기간: 2023~2025년, 기간 종료 후 대외환경 및 사업계획 변화에 따라 재검토 예정
214370	케어젠	코스닥	기초 의약품 제조업	· 연결 기준 30% 이상의 배당성향을 유지할 계획
058470	리노공업	코스닥	전자부품 제조업	· 향후에도 매 사업연도 이익규모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과거연도 배당성향 및 배당총액(당기순이익 30% 수준 배당성향 유지) 기준으로 배당을 실시할 계획
079900	전진건설로봇	유가증권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당해(2024년)부터 3년간 별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함을 배당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음
000270	기아	유가증권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2025~2027년 간 TSR 35%, 배당성향 25% 이상, 최소 주당배당금 5,000 원 목표
010130	고려아연	유가증권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기존 주주환원 정책: '별도 기준 배당성향 30% 이상 유지' → 2024~2026년 주주환원 정책: '연결 기준 3년 평균 총주주환원율 최소 40% 이상 유지'로 변경/상향
036570	엔씨소프트	유가증권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025~2027년 기간 중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매년 연결 당기순이익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일회성 비경상손익 제외 산정)의 30%를 현금배당
307950	현대오토에버	유가증권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주주환원 정책: 배당성향 25~35% (추진일정: 2023.01.01~2027.12.31)
078000	텔코웨어	유가증권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향후에도 연간 배당금총액이 연결당기순이익의 30% 이상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되,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범위와 투자자원·재무구조를 고려해 조정될 수 있음
039570	HDC 랩스	유가증권	전기 및 통신 공사업 ^{주4}	· 적용기간: 2024~2026년 사업연도 (3개년) · 환원규모: (별도 기준) 배당성향 30% 이상 현금배당 · 최소배당금: 주당배당금 최소 400 원 이상
443060	HD 현대마린솔루션	유가증권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 향후 3년간 (별도)당기순이익의 50~70% 수준의 배당정책 유지 · 향후 3년간 최소 DPS 3,000 원 유지
030000	제일기획	유가증권	광고업	· 2023~2024년 주주환원 정책: M&A 등 대규모 투자와 운전자금, 사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 60% 내에서 결정 ^{주5}

주1: 한국거래소 업종 분류

주2: 주주환원 정책 중 배당성향과 관련도가 높은 내용만 발췌

주3: CET1(보통주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중 하나로, 보통주를 통해 조달한 자본이 위험가중자산(RWA) 대비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CET1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높다고 평가 받음

주4: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에 홈오토, 홈네트워크 관련 특화 시스템을 개발·공급. 이 외에도 건축물의 조영·온도조절·환기·통신시설을 관장하는 시스템 및 급배수·냉난방·공기조화 등의 설비 구축, 도로·철도 등의 통신·신호 등 제어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도 수행

주5: 2025년 이후 기간에 대한 정책은 아니지만 배당성향 목표(60%)가 다른 기업들 대비 확연히 높은 수준이고 올해나 내년 중 유사한 주주환원 정책을 공시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상장공시시스템,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5년 5월 26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엄수진, 김예인)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